

세계 클래식 아티스트들 광주 온다

뉴욕·메트로폴리탄·함부르크
오케스트라 악장 활약 3인 협연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17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이 2024 우수초청공연기획 일환으로 오는 17일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를 펼친다. 협연 예정인 세종솔로이스츠. <광주문화재단 제공>

뉴욕필 악장 '프랭크 황', 메트로폴리탄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찬', 함부르크 국립필 오케스트라 악장 '다니엘 조'.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3인의 예술가가 광주에서 협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은 현악 앙상블 공연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를 오는 17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악장들과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세종솔로이스츠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2024 우수공연초청기획 일환으로 선보이는 첫 번째 무대다. 프랭크 황, 데이비드 찬, 다니엘 조 또한 세종 솔로이스츠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진정 음악회'가 될 전망이다.

프랭크 브리지의 경쾌한 '왈츠 인터메조'로 시작하는 공연은 두 그룹의 현악 4중주가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골리호프 '마지막 라운드' 등으로 이어진다.

세 명 해피파 악장들은 비발디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RV 511'과 레오나르도 곡 '스페니쉬 뿔의 세레나데 유머러스'를 협연한다.

하이라이트는 멘델스존 '현악 8중주 Op.20', 현악 앙상블이 보여줄 수 있는 균형미의 극치와 역동적인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며, 음단으로부터 '현악 앙상블의 진가를 담아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아 왔다.

2016년부터 줄리아드 음대 교수를 맡고 있는 프랭크 황은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잉 코르렛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했으며 발타사르 함부르크 재단 바이올린 콩쿠르,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다.

이 밖에도 이스트만 음대, 라이스데, 셰퍼드 음

프랭크 황

데이비드 찬

다니엘 조

악학교, 휴스턴대 교수 등을 거치며 음악적 기량을 펼쳐 왔다.

동시대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찬도 주목받는 예술가다. LA 필하모니, 샌디에고 심포니,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타이완 국립 심포니 등과 협연했으며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와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이올러 여섯 살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현재 함부르크 국립필 오케스트라 수석 악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조도 출연할 예정이다.

막스 로스탈 콩쿠르를 포함한 다수 국제 대회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카네기 와일홀에서 뉴욕 데뷔 리사이틀을 거치는 등, 세계를 무대로 활

약하고 있다. 재단 빛고을시민문화팀 송선아 담당은 "공연 주제인 '엑스트라바간자'는 형식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특징인 광시곡을 의미한다"며 "현악 앙상블과 거장들이 선사하는 음악적 감동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총 3회로 편성된 우수공연초청기획은 오는 31일 에이엠예술기획의 실내악 '비르투오소들의 조우(邂逅)', 9월 4일 극단수수파보리의 연극 '통속소설이 더 어때서?!' 등으로 계속된다.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스타 첼리스트의 환상 선율

11·12일 '피터 비스펠베이 리사이틀&마스터클래스' 북구문화센터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아이시루 제공>

피터 비스펠베이는 첼리스트 최초로 네덜란드 여왕으로부터 국가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50여 장 앨범을 발매하며 음단을 누볐다. 국내에서는 1996년 첫 내한공연 이후 꾸준히 리사이틀을 열어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를 두고 세계적인 레이블 그라모폰은 "독보적인 첼리스트이자 매우 아름다운 음악가"라 평했으며 뉴욕타임즈는 "깊은 전달력과 대단한 기량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주)아이시루가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마스터클래스'를 각각 오는 11일(오후 5시), 12일(오후 1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비스펠베이만의 독특한 악곡 해석과 창의적인 접근법을 볼 수 있는 자리다.

막을 여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총 6개 악장이 독특한 리듬과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바로크 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연주자의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력을 요구하며 오늘날 많은 첼리스트에게 필수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이어지는 코다의 '첼로 소나타'는 반주 없이 첼로로만 연주하는 독주곡이다. 헝가리의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데 평생을 바친 코다이의 곡답게, 헝가리의 토속적 정취가 강하게 흐른다.

한편 비스펠베이는 채널 클래식, 오닉스, EPR 등과 협업했으며 대표작으로 엠마뉴엘 바흐, 람로, 생상스 협주곡 등이 있다. 실내악으로는 파울로 자코메티와 함께한 슈베르트와 브람스 다섯 시리즈 음반 등을 발매하기도 했다.

아이시루 박소솜 대표는 "비스펠베이는 5년전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 리사이틀 무대인데, 작고한 그의 아들을 위해 헌정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석 6만원, 학생 50% 할인(마스터클래스 현매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 콘텐츠로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

ACC 웹툰 공모전 대상 '평범한 시민' '무주의 맹시'



최근 열린 2024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시상식 장면. <ACC 제공>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에서 청년·일반부문에 '평범한 시민' (오승현, 오수민, 강현, 박기영, 한지용 작)이, 유아·어린이·청소년 부문은 '무주의 맹시' (이지민, 이다희 작)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최근 '2024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이세진의 '피로 이어진 의지의 계'와 최예원의 '기다린 미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CC는 대상 2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20편의 작품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상금 180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작 '평범한 시민'은 저항과 나눔, 연대를 모티브로 연대해 가는 과정을 구현했으며, '무주의 맹시'는 역사 이면에 존재하는 무명 투사들에

대한 서사를 담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공모작 87편 가운데 주제, 작품성 등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수상작은 ACC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웹툰 공모전과 시상식은 광주 정신으로 대변되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며 "웹툰 공모전 외에도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지난 2018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동영상, 웹툰, 영상 콘텐츠(UCC), 삽화(일러스트) 등 모두 107편의 다양한 수상작을 배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 청소년 공연예술제 성료

광주예총 주최...초등 김보민·중등 함다빛·고등 이아림 '대상'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회장 임원식)가 최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한 '2024 제4회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본선 및 시상식이 성료됐다.

올해 4회를 맞은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는 여향 광주에서 예술인 꿈을 키워가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예술제는 초·중·고등부 재학생(및 동일연령 청

소년)을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부로 나눠 진행했다.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연예 등 5개 부문에 300여 팀 총 1000여 명이 지원했다.

예선전은 지난 31일 비대면 영상심사로 진행했으며 각 부문 1등 총 15팀이 본선에 올라 경합했다.

초등부 대상은 김보민(음악·전남·목포항도초) 학생이 수상했으며 중등부 대상 함다빛(음악·광

주·용봉중), 고등부 대상 이아림(무용·광주·예술고) 학생 등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대상(시상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교육감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수여했으며 우수상(의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광주예총 회장상)은 상금 50만원 등 총 405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예총 임원식 회장은 "예술도시 광주에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공연예술제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앞으로도 대회의 양적, 질적 측면을 꾸준히 향상시켜 예술계가 지역문화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